

선전 이끈 고등부, 광주·전남 체육 희망 쫓다



‘위풍당당’ 3일 오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폐막식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야구·럭비·하키 등 단체종목 기량 향상...대회新 6개 수립

전남, 볼링·양궁·정구 등 지역브랜드 집중 육성...‘성취상’ 수상

제주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 강원도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3일 막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개막해 일주간 열전을 치른 제주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경기도가 13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1계단 끌어올려 12위(3만1570점)를 차지하며 성취상을 받았다. 광주는 1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선수상은 양궁의 김우진(총부·정주시청)에게 돌아갔다. 김우진은 이번 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세계신기록 2개와 세계타이기록 1개를 세우며 3관왕에 올랐다.

◇광주, 단체종목·고등부 기량 향상=광주 선수단은 분전했지만 지난해 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1계단 하락, 15위를 기록했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양궁과 레슬링, 태권도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복을 따라잡지 못했다.

광주는 금메달 35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56개 등 총점 2만7023점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했던 1000점 이상(1144점) 획득에 만족했다.

다만, 야구·럭비·하키 등 단체종목과 광주체고·광주일고 등 고등부의 기량이 크게 향상돼 앞으로의 전국체전 전망을 밝게 했다.

김태균(광주시체육회)이 수중핀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팀 동료인 장예솔이 대회신기록 3개를 갈아치우는 등 광주 선수들은 총 6개의 기록을 새로 썼다.

스타 선수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육상 김덕현(광주시청)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정상에 오르며 대회 2관왕·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체조의 양학선(한국체대)은 도마에서 4연패를 달성, 아시안게임 은메달의 아쉬움을 달랠다. 유도도 김성연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



양학선



장예솔



김은정

전해 국내 정상임을 확인했다.

반면 아시안게임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썼던 양궁의 이득영과 기보배는 강한 제주 바람을 이기지 못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단체 종목에서 값진 기록이 쏟아졌다. 명진고가 소프트볼에서 전 경기 월드컵으로 전국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올해 모든 전국대회를 석권했다. 전남고는 럭비에서 동메달을 획득, 제76회 전국체전 은메달 획득 이후 19년만에 광주에 메달을 선물했다. 광주일고는 야구와 하키에서 각각 은메달을 땀다.

◇전남체육, 희망을 쫓다=지난해 13위였던 전남은 종합순위를 1계단 끌어올렸다. 한 수 아래인 제주가 개최지 인센티브를 받아 11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전남의 성적표는 사실상 11위다. 이는 3년전 순위 회복으로, 최근 6년간 큰 두박질했던 성적표에 비하면 성공한 결과다.

전남은 금메달 38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95개를 획득하는 등 총득점 3만1570점을 기록했다.

지년대보다 4275점을 더 올려 성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전남의 선전은 고등부가 이끌었다. 전남체고는 지난해(2821점)보다 644점을 추가해 3465점을 획득했다. 고등부 전체가 획득한 1만3000점의 25%다. 여기에 곡성·고흥의 볼링, 순천의 정구·양궁 등 지역 브랜드 종목의 집중 육성 효과도 큰 힘이 됐다. 특히 대진운이 좋지 않았던 단체종목에서 예상 밖 선전이 순위를 끌어올렸다. 배구가 종합 2위를 한데 이어 전남도청 정구·펜싱이 은메달, 무안군총검도,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이 동메달을 땀다.

하지만, 전남체육의 숙제는 여전히 남았다.

전남체육이 한 자릿 수 순위에 진입하는 등 중장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중심의 실업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팀 창단 및 연고지 전환 병행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최고 스타들 분투...셋별들도 ‘반짝’

양학선 대회 4연패...김덕현 2관왕·3연패

양궁 김종호 세계新·핀수영 김태균 한국新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세계무대를 누비는 국가대표들의 분투가 눈부셨다. 특히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와 연결되는 뽀빠한 일정 속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고향과 실업팀을 빛낸 베테랑들의 자존심이 뜨거웠다.

한국 역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세계 정상급 스타 사재혁(29·제주도청)은 과거 7차례 수술에도 굴하지 않고 오목으로 다시 썼다.

사재혁은 29일 남자 일반부 85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 금메달을 모두 틀어쥐고 건재를 알렸다. 그는 국가를 위한 아시안게임, 소속 실업팀과 고향을 위한 전국체전을 잇따라 치러 녹초가 된 채로 이달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한국 체조의 간판 양학선(22·한국체대)은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허벅지, 발목을 다쳐 지독한 부진을 겪었다. 그는 월급을 받느라 실업팀의 선수도 아니지만 체전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부상에도 출전을 강행했다. 양학선은 예선에서 고전해 주종목 도마에서만 결승에 진출한 뒤 15점대 점수를 사수하며 남자 일반부 4연패를 이뤘다.

한국 유도도 간판 김재범(29·한국마사회)은 남자 일반부 81kg급에서 우승해 체전 3연패를 이뤘다. 그는 최근 아시안게임 2연패에 2관왕까지 차지한 최고 기량을 체전에서 선보이며 1인자의 면모를 자랑했다.

‘키약의 전설’ 이순자(36·전북도청)는 여자 일반부 1인승 500m, 2인승 500m에서 우승해 무려 14번째 체전 제패를 이뤘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양궁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약전후 때문에 최고 스타들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국가대표 김우진(22·정주시청)은 남자 일반부에서 세계기록 2개, 세계타이기록 1개를 세우며 3관왕에 올랐다.

장혜진(27·LH)도 여자 일반부에서 0점이 속출하는 강풍 악재를 뚫고 개인, 단체전 2관왕을 이뤄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수영의 최고스타 박태환(25·인천시청)은 자유형 200m, 400m, 계영 800m, 400m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종목인 자유형에서 탁월한 기량을 재확인한 데다가 계영에서는 역전소를 연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베테랑들의 분전 앞에 기대주들의 화답도 이어졌다.

여자육상 단거리의 셋별 김민지(19·제주도청)는 일반부 100m, 200m에서 자기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다. 고교 시절이던 2012년, 2013년부터 이미 성인 선수들을 제치기 시작한 김민지는 아쉽게도 한국기록 경신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수영 기대주 임다솔(16·계룡고)은 여자 고등부 배영 200m 결승에서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해 미래를 밝혔다.

양궁의 김종호(20·인천계양구청)는 남자 일반부 70m에서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을 쏘며 셋별로 떠올랐다. 김종호는 개인전 토너먼트에서도 세계무대를 주름잡는 베테랑 스타들을 따돌리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연합뉴스